

Dow, K-Dow 계약 파기에 “소송”

25억달러 이상 손해배상 청구 ... 다른 파트너와 합작 가능성 내비침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그룹인 Dow Chemical은 합작 프로젝트를 철회한 KPC(Kuwait Petrochemical)에 대해 25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Dow Chemical은 KPC가 174억달러의 K-Dow 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Dow Chemical의 리버리스 CEO는 “합작 취소 소식에 매우 충격을 받았으며 계약 상대들이 보여주었던 의사와 행동을 고려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2009년 1월2일을 K-Dow 합작사업의 개시일로 간주하고 1500건의 이상의 문서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 “KPC가 계약을 위반했으며 기업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준비는 돼 있으며 다른 잠재적 파트너 2곳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Dow 합작사업은 Dow Chemical이 화학제품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야심찬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자재 사업부문의 지분 50%를 KPC에 넘기고 90억달러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50억달러 규모의 Rohm & Haas 인수 등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 왔다.

KPC 관계자들은 화학제품 수요 감소로 인한 Dow Chemical의 자산가치 하락 및 쿠웨이트 의회의 압력 등 여러 요인으로 합작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07>